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11월 8일(목) 18: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양기욱 동남아협력과장(02-2110-4621), 송영진 사무관(4622), 성창원 주무관(4624)	

한-인니 친환경차 협력 MOU 체결

- 인니의 친환경차 개발을 위한 양국간 협력 활성화 -

□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과 「하따 라자사(Hatta Rajasa)」 인니 경제조정부 장관은 11.8일(목) 발리에서 개최된 한-인니 정상회담*에서 인니의 친환경차 개발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함

* 이명박 대통령의 「제5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」('12.11.8~9일) 참석 계기 개최

○ 이번 MOU는 올해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인니 유도요노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인니의 친환경차 개발을 위한 한국의 협력을 요청하면서 이루어짐

□ 이번에 체결된 MOU를 통해 양국간 친환경 자동차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, 친환경차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임

○ 우선, 인니정부가 추진중인 전기차*, CNG차** 등 친환경차 개발과 전기차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F/S(타당성조사), R&D, 시범사업 등을 위해 양국 관련기관*** 중심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임

* '15년 상용화를 목표로 시속 80Km의 4인승 City-Car 및 16인승 Micro-Bus 등 국민전기차(MONALIS) 개발 추진

** '15년까지 공공부문 차량 약 25만대를 가솔린차→CNG차로 전환하기 위한 Converter-Kit(C/K) 개발·생산 추진

*** 자동차부품연구원, 생산기술연구원, 산업연구원 등

□ 인니는 동남아 중 가장 큰 자동차 수출시장('11년 : 89만대)으로 일본 기업이 약 97.7%('11년)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나,

* '11년 동남아 시장 현황 : 태국(80만대), 말레이시아(60만대), 베트남(11만대)

○ 인니정부 예산의 약 17.7%(190억불)를 차지하는 유류 보조금 문제, 대도시 지역의 대기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유도요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개발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의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

○ 이번 한-인니 친환경차 협력은 기존의 돈독한 한-인니 경제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, 향후 한국 자동차기업 및 관련 부품기업의 인니 미래 친환경차 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

※ 붙임 : 1. MOU 개요
2. 인니 자동차 시장 현황

붙임1 한-인니 친환경차 협력 MOU 개요

1. 추진 경과

□ APEC 정상회의('12.9.8~9일) 계기 양국 정상 조우시 인니 유도요노 대통령이 '친환경차 개발 협력'을 제안, 양국 정상간 추진에 합의

□ 12.10월 제3차 한-인니 경협실무TF 개최시 '친환경차 특별회의'를 통해 양국간 친환경차 협력 실행방안(MOU 체결 등) 논의

2. 체결 주체 : (한)지식경제부 장관 - (인니)경제조정부 장관

3. 주요 내용

□ **(목적)** 양국간 친환경차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, 친환경차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프로젝트 수행

□ **(협력분야)** 정책 수립, 전기차·충전인프라, CNG차·인프라 분야 협력

○ 인니의 친환경차 개발 및 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수행

○ 인니의 전기차 개발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시범사업 추진

○ 인니의 CNG차 이용 촉진을 위한 CNG 생산, 운송, 유통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연구 추진

○ 인니 친환경 자동차 개발을 위한 정부간 협력 확대, 관련기관 및 민간기관 상호간 협력 지원

□ **(실무협의체)** 양국의 정부 대표로 구성하며, 전문성을 갖춘 민간(비정부) 대표가 참여하여 운영

□ **(기타)** 서명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, 필요시 개정·연장·해지 가능

붙임2 인니 자동차 시장 현황

(1) 공급 측면

□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은 자국 산업기반 없이 '70년 도요타 진출 이후 일본계 업체들이 진출하면서 기반 형성

○ 인니 자동차 생산은 연간 84만대 수준('11년)으로 인니 자국 생산 업체들은 전무하며, 도요타 등 일본 업체들이 현지 생산을 주도

* 일본계 비중이 97.7%(818,620대)로 압도적이며 현대기아는 0.6%(5,366대)
** 전체 연간 자동차 생산능력은 약 113만대('11년)로 추정되며, 33만대의 다이하쯔, 14만대의 도요타 등 도요타 계열이 최대 생산 업체임

- '11년 생산된 84만대 자동차중, 11만대가 수출되고 73만대가 내수 시장에 판대

○ 우리나라는 현대기아차가 승용차 분야에서 관세우회를 목적으로 현지 CKD 방식의 조립 생산중('11년 5,366대)

- 상용차 분야에서는 과거('06.6월~) 현대-인니 KORINDO社 합작으로 CKD 생산했으나, 해당업체의 계약 불이행 등으로 계약 종료('12.3월)

□ 부품업계 Supply chain은 차량 조립을 위한 3단계 협력구조 형태로 총 1,000여개 업체들이 사업중

○ 1차 협력업체는 일본 회사가 합작한 자본 투자에 의한 조인트 벤처회사로서 모듈을 생산하며,

- 2·3차 협력업체는 Local 업체로 단순 생산에 의존하는 부품을 제조하여 1차 조립업체에 납품

○ 고급 부품의 경우에는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매우 낮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, 단순 품목의 경우에는 현지 생산을 활용

* 주요 수출품목 : 타이어, 와이어하네스, 휠 및 부품 등
주요 수입품목 : 엔진 및 부품, 차체 부품, 변속기 및 부품, 조향장치 및 부품 등

(2) 수요 측면

□ 인니 자동차 시장은 동남아 국가 중에서 내수 판매량 1위*(89만대, '11년)를 기록 하고 있으나 한국(148만대, '11년)의 60% 수준

* '11년 동남아 시장 현황 : 태국(80만대), 말레이시아(60만대), 베트남(11만대)

○ 인니 인구(2.3억)는 한국(0.5억)의 4배 이상이나, 1인당 GDP는 3,400불로 한국의 2만 3,700불의 14.3%에 그쳐 자동차 시장도 작은 편

○ 다만, 최근 내수 시장은 상승 추세('11년 내수는 '10년 대비 16.9%↑)

* 인니 자동차 시장의 성장가능성은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, 일본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

□ 내수 판매의 경우에도 일본계 자동차 업체들이 전체 시장의 95%를 점유하고 있으며, 미국(2.3%), 한국(1.6%), EU(0.9%)는 미미한 수준

○ 자동차 시장중 승용차는 61.5만대(68.8%), 상용차는 27.9만대(31.2%)로 모두 증가 추세('11년 내수는 '10년 대비 승용차 13.6%↑, 상용차 25.1%↑)

○ 승용차 중에서 MPV*, 일부 SUV, 컴팩트 카 등을 포함하는 4×2 세그먼트가 낮은 사치세율**로 인하여 승용차 시장의 94%를 차지

* MPV(Multi Purpose Vehicle) : 한국에서는 카랜스 형태의 차를 말하나, 인니에서는 해치백, 왜건, 미니밴 등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4x2 세그먼트의 65% 차지

** 내수 규모가 작은 세단형과 대형, 고급차에는 높은 사치세율이 부과(30~75%)되는 반면, 2,500cc이하 4x2 세그먼트에는 낮은 세율(10~20%)이 부과

< 인도네시아 승용차 세그먼트 구분 >

구 분	그 림	설 명
세단		지붕이 있는 일반적인 승용차로서 실내에 2열의 좌석이 있어 4~5명이 탑승하며 뒷부분에 트렁크가 있음
4×2		4개의 바퀴 중에서 2개가 엔진으로부터 구동력을 전달받아 동작함. 2WD라고도 불리우며 세단형 이외의 승용차를 모두 포함 (단, 4×4 제외)
4×4		4륜구동 승용차